

“유종의 미 거두도록 애쓴 의원 스님들에게 감사”

■ 제198회 임시회…종헌중법 개정 등 20여건 다루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는 지난 6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총 80명의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제15대 중앙종회의의 마지막 회기가 되는 만큼 정책질의와 총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개회 직후부터 인사 관련 안건과 20여 건에 이르는 종헌·종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지난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 2건을 포함한 종헌개정안 6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가운데 비구니 스님의 초신호 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허용한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계 종사, 승남 35년, 세납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명덕, 승남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중덕·정덕, 승남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반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 승남 20년 이상 종단 스님 6000여 명으로 확대한 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지 못하고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총무원이 지난 5월21일 입법예고한 종헌개정안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구성을 법계 대덕(혜덕), 승남 20년 이상의 스님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집행부 안으로 제시된 준 직선제(3795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에서는 교구본사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잇달아 차기 종회에서 이를 반영해 다시 다루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원 염당스님은 “모든 종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종단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절차를 더 거친 후 논의하도록 다음 회기로 이월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종회의원 성직스님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차기 종회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인법 대체입법을 비롯해 종법 제·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선거법’을 개정해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는 자격심사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 유세과정에서 불거지는 자격논란의 가능성을 줄였다. 또 말사 주지의 선거운동

을 허용했으며, 종회의원 선거권자 중 거주승 법계를 ‘비구’로 명시했다. ‘총무원법’과 ‘지방종정법’을 개정해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가 재임을 위해 후보등록 할 경우 선거일까지 권한을 대행도록 했다. 중고등학생의 출가를 활성화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소년 출가자가 계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구본사 주지 추천제도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승려법 개정안’, 법계품서식 일정은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법계위원장의 요청으로 종정이 진행하도록 한 ‘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 상향조정
말사주지 선거운동 허용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
직영사찰법 개정안 이월

반면 교구본사에 분산 예치돼 있는 부동산 수익금을 위원회를 통해 통합 관리해 교세 확장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도록 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과 직영사찰의 예산은 총무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이밖에도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스님 장계축구 결의,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건, 호국스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중앙종회는 개회 첫날인 이날 오후 안건 대부분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를 선언했다.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은 “의정으로서 수행이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것에 대해 의원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제15대 중앙종회에서 많은 종헌·종법이 통과돼 앞으로 종단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제198회 임시회로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한 제15대 중앙종회의원 기념촬영. 총무원장 자승스님(앞줄 가운데) 호계원장 일면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허운스님, 도신스님, 법준스님, 허운스님, 주혜스님, 범우스님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 소청심사위원, 총림학교관리위원, 진흥원특위 위원

“종단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호법부장 세영스님
임명 동의안 ‘통과’

각 위원선출 마무리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스님의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인사와 관련된 안건을 만장일치로 모두 의결했다.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는 지난 6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호법부장 임명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동의를 받은 호법부장 세영스님은 “부족하지만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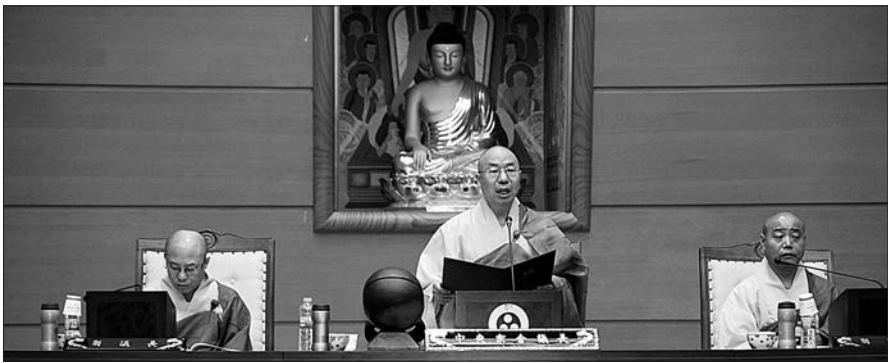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정만스님의 총무부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재심호계위원회에는 전동화사 주지 허운스님, 세영스님의 호법부장서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회에는 서광사 주지 도신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은 조



세영스님
호법부장

원에는 천죽사 주지 법준스님과 전 서봉사 주지 허운스님, 종림학교관리위원회 원적정사 주지 주혜스님,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에 전동화사 주지 범우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 소속 총무원과 본·말사 주지에 대한 징계회부,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한다. 종림학교관리위원회는 동국대 등 종단 종림학교가 건학이념 및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지도하는 기구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15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단. 왼쪽부터 차석부의장 법안스님, 의장 항적스님, 수석부의장 정묵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종도 기대 못 미쳤지만 종단 안정에 일정 기여”

■ 제15대 중앙종회 결산

종단쇄신 입법 큰 역할
대사회적 역할도 충실

지난 2010년 출범한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가 제198회 임시회를 끝으로 회기운동을 통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는 10월16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아직 4개월 여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입법을 다루는 회기를 모두 마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15대 종회는 막을 내렸다.

보선스님(전반기)과 항적스님(후반기)이 의장을 맡은 제15대 종회는 지난 4년 동안 한 차례 유회를 제외한 총 13회 회의를 열어 종단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다뤘다. 특히 제190회 임시회에서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선거제도 개선안인 산중총회법 등 종단 1차 쇄신계획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당시 백양사 사건 등으로 승가 위기가 손상된 가운데 나온 총무원의 쇄신법안은 중앙종회가 제도로써 뒷받침하면서 종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 총림 지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기존 5대 총림에서 3곳을 추가해 8대 총림의 시대를 열었다.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삼정원별원법이 제정돼 참선 외 염불, 간경 등 수행법이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 옛 무량회, 무자회, 백상도량 소속 중앙종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3자연대가 지난 4월 새로운 연합

정책모임인 ‘삼화도량’으로 재출범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로써 종단 정책모임은 지난 총무원장 선거에서 새 집행부를 출범시킨 불교광장과 삼화도량으로 재편됐다. 이후 열린 종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종교편향에 여객선 세월호 참사 등 종단 안팎에서 다양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사회적 역할에도 충실했다. 특히 지난 6월16일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논란이 됐던 문창국 총리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자진사퇴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종회의원들의 저조한 종회 출석률과 상임분과위 배분에 있어 특정분과 집중화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승려법, 교구법,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방법 등 종단 선거와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벌였음에도 본회의에서 그에 맞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스님은 “제15대 종회 상·하반기 활동이 종도들의 기대에 전적으로 부응했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로 무난히 진행돼 종단 안정에도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위한 교육과 전문성을 높이는 ‘입법 전문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회기가 아닌 시기에도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고, 종도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질의와 종무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합니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후 토착신앙과 조화를 이루며 겨레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우는 데 주역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나라에 큰 시련이 닥쳤을 때마다 생명존중사상과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국난극복에 앞장서 국가공동체 수호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서산대사께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總攝)’직을 수여하고 나라와 백성을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서산대사께서는 계를 파하는(越戒)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국가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전국 사문에 격문을 보내어 사명대사, 처영대사, 영규대사 등 제자들과 함께 5천여 명의 의승군을 소집하였습니다.

서산대사는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평양성 전투에 참여하여 왜적을 퇴각시켰고, 처영대사는 권율과 함께 행주산성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사명대사는 노원평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성 수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800여 명의 전라좌수영 의승수군은 홍국사를 중심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수군이 승리를 거두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승군은 조선의 군세를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정은 스님들을 다시 평가하고 나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등 산성의 축성과 수비를 승군에게 맡겼습니다. 또 왕조실록을 분산 보존하던 사고지를 모두 사찰 경내에 조성하였고, 이를 수호하는 사찰을 지정하고 승장과 승군에게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스님들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등에 참여하였고, 국내 독립운동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란이라는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뿐 아니라 전란을 겪은 뒤에도 중대한 임무를 맡아 수행했던 승장과 의승군에 대한, 즉 구국제민(救國濟民)이라는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의병장 조현이 이끈 7백 의병과 영규대사가 이끈 의승군이 연합하여 1만 5천 명의 왜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7백 의병과 2백 의승군이 전몰했습니다. 그러나 승군은 신분이 승려라는 이유로 700의총(七百義冢)에도 들어가지 못하여 무명용사의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계역사상 민족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종교집단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맞아 종교적 가치와 대의적 신념 간의 갈등을 무릅쓰고 민족공동체를 수호한 수많은 승장과 의승군의 헌신은 세계역사와 종교사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먼저 ‘호국 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한국 역사에서 면면히 이어진 의승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고, 그분들의 정신을 기려야 합니다. 물론 국가기념일 제정 사업의 주체는 한국 불교계 전체이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승장과 의승들이 동체대비 호국애민의 숭고한 정신을 발한 이유는 단지 불교를 수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불교계는 물론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을 망라한 범국가적인 ‘호국 의승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국가기념일 제정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2014년 6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회의에서는 ‘호국 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 수많은 승장과 의승군의 희생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호국 의승의 날’제정 사업을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합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호국 의승의 날’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